

^^^ 햇살 좋은 집 하은·신우네 (2025년 3월호)

“마을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행 16:10)

♣ 이곳 모습



다니엘선교센터 후원 양식나눔(미얀마 친족)

♣ 감사

1. 말레이북부 감풍뽕나무 원주민 교회건축을 시작함에 감사
2. 미얀마 친족 난민학교 중학교 과정(8학년)을 개설함에 감사. 과학 박장로님, 미술 박/김선생님 부부의 지속적 섬김에 감사
3. 다니엘선교센터의 제 27차 양식나눔을 통해 미얀마 친족난민 250가정과 장애인 가정에 쌀을 지원함에 감사
4. 김은유선생이 올해 3월 1일부터 루터란의 원주민 분과로 이동하여 원주민 사역팀과 함께 훈련과 교회개척 사역에 집중함에 감사

♣ 함께

5. 김은유선생이 말레이시아 선교 60주년 발제와 출판, 편집위원 중 한명으로 참여하고 있다. 작업이 순적이 진행되도록
6. 이보배선생이 루터란 여성 리트릿, 김은유선생이 사역자 리트릿에 참여한다. 풍성한 교제,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7. 3년여 섬겼던 현지 화교교회(9mcl)가 수적,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비계목처럼 이제 새로운 필요가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잘 옮길 수 있도록
8. 사역자 부족을 겪는 정글 원주민교회를 위해 성경학교를 개설하고, 양질의 전도자를 잘 양육하고 지원하도록
9. 원화환을 상송 등의 여파로 재정이 30% 감소하였다. 부족한 목표액이 채워지고 누적된 빚을 청산하도록

♣ 하은 & 신우 (고2)

10. 하은. 가족을 그리워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운동을 좋아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11. 신우. 말레이시아 현지대학의 오픈데이에 참여하여 학교결정과 앞으로의 진로 대해 방향을 잡음에 감사

♣ 다시 비계목

토착교회 운동은 선교사가 현지 문화와 사회에 적합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접근법이다. 이 운동은 중국내지선교회(CIM)와 해외선교회(OMF)에서 널리 채택된 비계목 모델(Scaffolding model)을 통해 실현된다. 비계목 모델은 교회를 세운 후 선교사가 잠시 교회의 건축과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교회가 성숙하고 안정되면 선교사는 그 자리를 떠나 현지인들에게 교회의 지도와 책임을 넘기는 방식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4자 선교 원칙으로, 이를 통해 교회가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첫 번째 원칙은 “자립(Self-supporting)”이다. 새로 시작된 교회가 외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또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단계에서 현지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회의 지속 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 원칙은 “자전(Self-propagating)”이다. 선교사들이 외부 자금을 통해 현지 목사나 전도자를 고용하는 것은 교회의 자립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신자들이 전도 활동에 참여하고, 특히 신앙의 성숙을 통해 스스로 교회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자치(Self-governing)”이다. 교회가 독립적인 지도 체계와 질서를 확립하도록 돕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초기 단계에서 교회를 이끌 수 있지만,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 지도와 관리의 책임을 현지인들에게 맡겨야 한다. 선교사는 현지 교회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 원칙은 조금은 생소한 “자기신학화(Self-theologising)”이다. 교회가 성경에 기초한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현지 문화와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현지인들이 스스로 신학을 발전시키고 교회의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4자 원칙은 현지 교회가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부 지원 없이도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교회가 현지 사회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핵심적인 전략이다.

중국에서와 같이 말레이시아에서도 ‘비계목’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다. 몇 해 동안 동고동락 했던 현지공동체를 떠나 새로운 일터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지 화교교회와 리더들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2025년 3월 14일

비계목 역할에 힘쓰는 김은유 이보배 가정 올림

※ 후원방법

- 개인후원: 국민은행 049790-29-000045 OMF 김은유, 국민은행 606-21-1737-987 김기성
- 본부 연락처: 02 455 0261 OMF 한국본부 / 처음입금, 목적현금, 영수증 필요 시 본부로 연락바랍니다.
- 개인 연락처: 카톡 minamkks / 말레이시아 전화 +60 149200232 / noah123@한메일.net
- OMF 패밀리로 한국본부에 가입(월 오천 원 이상) 하시면 관련서적들과 선물을 보내드려요. (한국본부에 문의)